

# 道通眞境의 실현과정에 관한 研究

金正泰\*

## 目次

I. 머리말	III. 진경의 실현과정
II. 도통의 실현과정	1. 진경의 이해
1. 도통의 이해	2. 진경실현 과정의 이해
2. 도통실현 과정의 이해	3. 진경실현을 위한 구체적 노력
3. 도통실현을 위한 구체적 노력	IV. 맺음말

## I. 머리말

대순진리의 핵심교의는 진멸지경(盡滅之境)에 처한 선천세계를 극복하고 상서(祥瑞)가 무르익는 후천선경을 건설하는데 모든 교의가 집약된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道通眞境은 그간 종지와 관련하여 논총(論叢)에서 논의된 음양합덕·신인조화·해원상생의 모든 원리와 내용이 총체적으로 집약되어 완성을 이룬 결정체(結晶體)를 의미한다.<sup>1)</sup>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道通眞境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특성에 기초하여 후천선경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가는 과정의 연구를 통해 道通眞境이 지니고 있는 상세한 이해와 그것의 실현 가능성을 인식하는데 있다.

\* 대진대학교 대순종학과 교수

1) 이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대순사상논총」 1·2·3·4집을 참조할 것

道通眞境의 연구 방법은 그것을 도통과 진경으로 나누어 그 의미와 개념을 분석하고, 그것이 단계적으로 실현되어 가는 과정의 이해를 통해 道通眞境이 지니고 있는 총체적인 의미를 파악하는데 주력해 보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에서 도통(道通)과 진경(眞境)을 나누어 분석하는 이유는 대순진리에 나타나는 도통은 대개 인간을 그 중심 대상으로 한다는데 첫 번째 이유가 있다. 즉 道通眞境이란 대순진리에서 제시하는 이상세계를 설명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상적 인간상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과 그 이해를 그것이 실현되어가는 과정을 통해 살피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진경은 인간을 포함한 전체세계를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상세계를 실현해나가는 대순진리의 방법론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그 두 번째 이유이다. 따라서 도통과 진경의 실현과정을 총체적으로 이해함으로써 현실 속에서 그것을 이룩하고자 노력하는 우리들은 그것의 인식을 통해 보다 정확한 표식(標識)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 II. 도통의 실현과정

대순진리의 종지는 음양합덕·신인조화·해원상생·道通眞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종지의 순차적 특징과 관련성은 그간의 논총에서 밝힌바 있다.<sup>2)</sup> 종지가 나타내고 있는 이러한 일련의 순차적 특징은 대순진리의 이상과 목적을 실현하는 중요한 방법과 원리를 전달하고 있다.

음양합덕은 대순진리의 이상과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기초적 원리를 전체적 구도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음양의 특성에 기인하여 나타나는 신과 인간의 조화(調化)는 이상적 인간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원리와 실천방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해원상생은 음양합덕과 신인조화의 결과를 토대로 대순진리에서 제시되는 구제(救濟)의 가장 중요한 원리이며, 방법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렇듯 앞서 전술한 종지는 결국 道通眞境의 결과를 도출해 냈던 것이며,

2) 자세한 내용은 대순사상논총 1·2·3·4집을 참조할 것

그것을 통해 대순진리에서 제시하는 이상세계의 모습을 보다 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그 가능성을 확인케 한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道通眞境이 지니는 특징에 주목하여 이상세계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을 보다 상세하게 전개하여 봄으로써 대순진리에서 제시하는 이상세계의 내용과 의미를 살피고자 한다.

## 1. 도통의 이해

일반적으로 도통은 사물의 오묘한 이치를 깨달아서 통하는 것<sup>3)</sup>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사실은 『전경』의 내용의 내용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옛적부터 상통천문(上通天文)과 하달지리(下達地理)는 있었으나 중찰인의(中察人義)는 없었나니 이제 나오리라.<sup>4)</sup>

위의 『전경』 내용은 대순진리에서 제시되는 도통의 총체적인 의미를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도통은 천·지·인 삼계의 모든 이치를 깨닫고 이해한 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대순진리회에서 봉송(奉誦)되는 도통주(道通呪)의 내용은 이러한 사실을 더욱 더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도통도덕으로 상통천문(上通天文)하고 하달지리(下達地理)하고 중찰인사(中察人事)케 하옵소서

사물의 모든 이치를 깨닫고 이해하는 경지를 나타낸 도통은 천지만물의 현상을 상징적 부호를 통해 표현하고 있는 팔괘(八卦)와 깊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된다. 먼저 그와 관련한 내용을 『전경』을 통해 살펴해보겠다.

3) 양주동 감수, 『국어대사전』, (서울:善一文化社, 1977), 532쪽 참조.

4) 『전경』, 교법 3장 31절

류찬명은 도통이 건곤간진손이곤태(乾坎艮震巽離坤兌)에 있으리라는 가르침을 상제로부터 받았느니라. 이 가르침을 받고 그는 큰 소리로 건곤간진손이곤태(乾坎艮震巽離坤兌)를 읽고 상제의 앞에서 물러나왔도다.<sup>5)</sup>

위에서 언급되는 팔괘는 자연계(自然界)·인사계(人事界)의 모든 현상을 음양(陰陽)을 상징하는 부호(---)를 통해 설명한 것으로, 그것을 다양하게 조합하고 겹치게 하여 여덟가지 상으로 나타낸 것이다.<sup>6)</sup> 따라서 사물의 총체적인 내용을 상징적 부호를 통해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팔괘가 사물이 지니고 있는 오묘한 이치를 상징적인 부호를 통해 밝히고 있는 것이라면, 팔괘에 관한 이해는 사물에 관한 이해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물의 총체적인 이치를 깨닫는 도통의 의미와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상제께서 도통이 팔괘에 있다고 지적하신 말씀을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도통이 팔괘와 깊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의 관계를 통해 도통이 지니는 의미를 파악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 이유는 대순진리에서 제시되는 도통의 총체적인 의미와 내용이 단순히 팔괘에만 귀착(歸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팔괘가 지니는 의미에 한정하여 도통의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한다는 것은 분명 무리가 따르는 일이며, 팔괘와 관련한 위의 「전경」은 상제께서 행하신 천지공사이기 때문에 쉽게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난점이 있다.<sup>7)</sup> 그러나 도통이 사물의 오묘한 이치를 깨닫는 것이라고 할 때, 팔괘를 이해하는 것이 사물의 이치를 깨닫게 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대순진리에 나타나는 도통은 분명 사물의 오묘한 이치를 깨닫는 것이라는 것이면서 그것의 구체적 내용은 천·지·인 삼계의 모든 이치를 깨닫는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경」의 또 다른 내용은 이러한 내용의 한계를 뛰어 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5) 「전경」, 교운 1장 41절

6) 양주동 감수, 앞의 책, 2137~8쪽 참조

7) 이와 관련하여 소태산은 1917년 7월 26일부터 단장(團長)인 소태산을 비롯하여, 乾·坎·艮·震·巽·離·坤·兌 의 팔방(八方)에 각각 한 명씩 배치하고 中央에 송규를 서임하는 최초의 十人一團 교단조직을 구성하였었다. 송규, 「불법연구회 창건사」, 22~3쪽. 이러한 사실은 상제께서 말씀하신 ‘도통이 팔괘에 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같은 조직원리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상제께서 말씀은 계속하시기를 「공자(孔子)는 七十二명만 통예시켰고 석가는 五百명을 통케 하였으나 도통을 얻지 못한 자는 다 원을 품었도다. 나는 마음을 닦은 바에 따라 누구에게나 마음을 밝혀 주리니 상재는 七일이요, 중재는 十四일이요, 하재는 二十一이면 각기 성도하리니 상등은 만사를 임의로 행하게 되고 중등은 용사에 제한이 있고 하등은 알기만 하고 용사를 뜻대로 못하므로 모든 일을 행하지 못하느니라」 하셨도다.<sup>8)</sup>

이처럼 위의 『典經』 내용은 대순진리에서 제시되는 도통이 단순히 천·지·인 삼계의 오묘한 이치를 깨닫고 이해하는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말하면 깨닫고 이해하는 차원을 뛰어 넘어 그것을 용사(用事)하는데 도통의 커다란 의의가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내용에서 언급된 것처럼 진정한 도통의 경지는 만사(萬事)를 이해하고 만사(萬事)를 임의(任意=마음 먹은대로 행하는 경지)임을 짐작하게 된다. 이러한 임의용사(任意用事)와 관련한 내용은 아래의 『전경』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자.

상제께서 전주 이치안의 집에 高見遠慮曰智의 글을 써 놓으셨도다. 智者 與天地同 有春夏秋冬之氣 每事 任意用之 謂之智慧勇力...<sup>9)</sup>

이처럼 『전경』에 나타난 지혜용력(智慧勇力)은 매사를 뜻대로 용사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는 임의용사와 지혜용력이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거나 깊은 관련성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케 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지혜용력은 천문지리·풍운조화·팔문둔갑·육정육갑 등과 깊은 관련성을 지닌다는 특징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전경』 내용은 그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 하루는 공사를 행하시고 五呪와 글을 쓰시니 이러하도다. 天門地里 風雲造化 八門遁甲 六丁六甲 智慧勇力...<sup>10)</sup>

8) 『典經』, 교운 1장 34절

9) 지(智)는 천지와 같고, 봄·여름·가을·겨울의 기운이 있다. 매사(每事=모든일)를 마음 먹은대로 하는 것을 일러 지혜(智慧) 용력(勇力)이라 한다. 『전경』, 제생 43절. 이는 필자의 주관적 해석이므로 관점에 따라 다른 해석이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혜용력은 천문지리·풍운조화·팔문둔갑·육정육갑과 깊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이 지니고 있는 특성에 기인한다면 지혜용력은 분명 사물에 내재한 오묘한 이치와 그것의 변화작용을 이해하고 용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참다운 도통은 지혜용력의 내용에서 보이는 것처럼 삼라만상의 이치를 깨닫고(지혜) 용사하는(용력)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으며 그것이 도통의 참다운 경지임을 짐작하게 한다. 그리고 지혜용력은 유·불·선과도 깊은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전경』 내용을 통해 살펴보자.

... 상제께서 류 찬명에게 天文地理 風雲造化 八門遁甲 六丁六甲 智慧勇力과 回文山五仙圍碁穴 務安僧達山胡僧禮佛穴 長城巽龍仙女織錦穴 泰仁拜禮田群臣奉詔穴을 쓰게 하고 불사르셨도다.<sup>11)</sup>

이처럼 『전경』은 여러 구절의 내용을 통해 지혜용력(智慧勇力)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의 『전경』 예문에서 나타난 것처럼 지혜용력은 회문산오선위기혈(回文山五仙圍碁穴)·무안승달산호승예불혈(務安僧達山胡僧禮佛穴)·장성손룡선녀직금혈(長城巽龍仙女織錦穴)·태인배례발군신봉조혈(泰仁拜禮田群臣奉詔穴)과 관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내용은 지혜용력으로 표현되는 도통과 관련하여 깊은 관심을 갖게 한다. 그러면 그러한 관련성 살펴보자.

위에서 제시되는 혈(穴)이 지니고 있는 특성에 의거한다면 그것은 분명 유·불·선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sup>12)</sup> 아래의 『전경』 내용은 그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10) 『전경』, 예시 88절

11) 『전경』, 행록 5장 21절

12) 이와 관련하여 『전경』, 행록 5장 15절의 내용을 참조하면 「다음과 같다.

...궁을가에 있는 사명당 갱생이란 말은 중 사명당이 아니라 밝을 명자를 쓴 사명당이니 조화는 불법(佛法)에 있으므로 호승예불혈(胡僧禮佛穴)이오. 무병장수(無病長壽)는 선술(仙術)에 있으니 오선위기혈(五仙圍碁穴)이오. 국태민안(國泰民安)은 군신봉조혈(群臣奉詔穴)이오. 선녀직금혈(仙女織錦穴)로 창생에게 비단 옷을 입히리니 六月十五日 신농씨(神農氏)의 제사를 지내고 공사를 행하리라. 금년이 천지의 한문이라. 지금 일을 하지않으면 일을 이루지 못하니라」 하셨도다.

...궁을가에 있는 사명당 갱생이란 말은 중 사명당이 아니라 밝을 명자를 쓴 사명당이니 조화는 불법(佛法)에 있으므로 호승예불혈(胡僧禮佛穴)이요. 무병장수(無病長壽)는 선술(仙術)에 있으니 오선위기혈(五仙圍碁穴)이요. 국태민안(國泰民安)은 군신봉조혈(群臣奉詔穴)이요. 선녀직금혈(仙女織錦穴)로 창생에게 비단 옷을 입히리니...<sup>13)</sup>

이처럼 도통의 구체적 경지를 나타내고 있는 지혜용력과 유·불·선은 분명 깊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관련성은 다음의 『전경』 내용에서도 상세히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그리고 「내가 도통줄을 대두목에게 보내리라. 도통하는 방법만 알려주면 되려니와 도통될 때에는 유 불 선의 도통신들이 모두 모여 각자가 심신으로 닦은 바에 따라 도에 통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어찌 내가 홀로 도통을 맡아 행하리오」 라고 상제께서 말씀하셨도다.<sup>14)</sup>

이와 같은 사실은 도통과 유·불·선이 깊은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나타내는 것으로, 대순진리에서 제시되는 도통의 또다른 의미를 짐작하게 한다. 그러면 먼저 도통과 깊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 유·불·선의 특징을 『전경』을 통해 살펴보자.

受天地之虛無仙之胞胎 受天地之寂滅佛之養生 受天地之以詔儒之浴帶<sup>15)</sup>

위의 내용은 유·불·선이 태동되는 배경을 천지와 관련하여 설명한 것으로 “천지(天地)의 허무(虛無)를 받아 선(仙)이 포태(胞胎)하고, 천지(天地)의 적멸(寂滅)을 받아 불(佛)이 양생(養生)하고, 천지(天地)의 이조(以詔)를 받아 유(儒)가 욕대(浴帶)했다.”라고 해석될 수 있다.

위의 내용에서 주장되는 이조·적멸·허무는 유·불·선에서 주장되는 우주의 근원이나 바탕을 나타낸 것으로, 그것을 천지로부터 부여받아 선천세계에서 유·불·선을 태동하고 그 근원을 가르치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선·불·유는 포태·양생·욕대라는 각각의 기능적인 면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성숙한 어른이 되는 과정을 나타낸다.

13) 『전경』, 행록 5장 15절

14) 『典經』 교운 1장 41절

15) 『전경』, 교운 1장 66절

따라서 선·불·유는 인간에게 천지의 근원을 설명하고, 불도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르고, 유도는 세상에서 근원을 실행할 수 있는 행위적인 가르침을 전달했던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의 『전경』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佛之形體仙之造化儒之凡節<sup>16)</sup>

이와 같이 불(佛)은 도를 양생하여 그 형체(形體)를 가르치는데, 주력하였고, 선(仙)은 도의 근원을 포태하여 그것의 조화(造化)를 중시했으며, 유(儒) 하늘의 조칙(詔勅)을 인간에게 전하여 그것을 범절(凡節)<sup>17)</sup>로 가르쳤다고 본다. 이처럼 유·불·선 선천세계에서 인간을 기르고 성장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근간을 이루었으며, 그것은 세계문화의 바탕이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의 『전경』 내용에서도 상세히 밝히고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또 어느날 상제께서 말씀하시길 “仙道와 佛道와 儒道와 西道는 세계 각 족속의 문화의 바탕이 되었나니...<sup>17)</sup>

위의 내용은 유·불·선이 선천종교와 인류의 정신문명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사실을 인식케 한다. 그리고 도통은 이러한 원리나 가르침을 합하여 완성을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도통과 유·불·선의 가르침은 불가분의 관계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언급하기로 하겠다.

다음은 『전경』에 나타난 내용 중에서 도통과 관련한 또다른 내용을 통해 도통이 지니는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공우가 어느날 상제를 찾아 뵈옵고 도통을 베풀어 주시기를 청하니라. 상제께서 이 청을 꾸짖고 가라사대 「각 성(姓)의 선령신이 한 명씩 천상 공정에 참여하여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 이제 만일 한사람에게 도통을 베풀면 모든 선령신들이 모여 편벽됨을 힐난하리라. 그러므로 나는 사정을 볼 수 없도다. 도통은 이후 각기 닦은 바에 따라 열리리라」 하셔도

16) 『전경』, 공사 3장 39절

17) 『전경』, 교운 1장 65절



다.18)

위의 내용에서 도통과 관련한 특이한 사실중 하나는 도통이 선령신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선령신은 자손의 도통을 기대하며, 그것에 대한 깊은 관심과 함께 감찰(鑑察)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처럼 자손의 도통은 선령신이 기원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 선령신은 해원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선령신이 해원하기 위해서는 자손이 도통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러한 입장과 그에 따른 관계를 아래의 『전경』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제 각 선령신들이 해원 시대를 맞이하여 그 선자 선손을 척신의 손에서 빼내어 덜미를 쳐 내세우나니 힘써 닦을지이다.19)

이렇듯 선령신은 자손의 바른 수도를 기원하며, 도통을 염원하고, 또한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해원시대를 맞이하여 척신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자손들이 수도에 전념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음을 이해하게 된다.

이는 음양합덕과 신인조화 그리고 해원상생의 종지가 모두 어우러 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해원과 보은의 양대원리가 적용되어 상생을 이루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도통을 이루는 중요한 수행의 방법에는 선령신을 섬기는 일이 중요한 지침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는 단순히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의 논의가 아닌 후천개벽에 따른 변화된 우주의 법칙과 맞물려지는 내용으로 이해된다.

대순사상에서 제시되는 개벽(開闢)과 원시반본(原始返本)의 이치를 살펴보면 개벽시대에는 원시반본이 이루어지고 원시반본의 원리에 따라 혈통줄이 바로 잡히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환부역조(換父逆祖)와 환골(換骨)하는 사람은 다 죽게 된다는 사실을 상제께서는 강조하고 계신다. 따라서 근원을 무시하거나 저버리는 태도를 그것을 금기하고 계심을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전경』은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18) 『典經』, 교운 1장 33절

19) 『전경』, 교법 2장 14절

원시반본하는 때라 혈통줄이 바로잡혀 환부역조와 환골하는 자는 다 죽으리라.<sup>20)</sup>

위의 가르침을 감안한다면 도통은 분명 선령신과 깊은 관련성을 지닌다. 따라서 선령신에 대한 보은적 태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는 것이며, 이러한 행위의 중요성을 『전경』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계신다.

상제께서 대흥리에서 三十장의 양지 책의 앞장 十五장 마다 “背恩忘德 萬死神 一分明一陽始生”을, 뒷장 十五장마다 “作之不止聖醫雄藥 一陰始生”을 쓰고 경면주사와 접시 한개를 놓고 광찬에게 가라사대 “이 일은 생사의 길을 정함이니 잘 생각하여 말하라”고 하시니 광찬이 “선령신을 섬길 줄 모르는 자는 살지 못하리이다”고 여주니 상제께서 말씀이 없으시다가 잠시 후에 “네 말이 가하다” 하시고 접시를 종이에 싸서 朱砂를 묻혀 책장 마다 찍으셨도다. “이것이 곧 馬牌라”고 이르셨도다.<sup>21)</sup>

이처럼 선령신에 대한 보은적 태도의 중요성은 천지공사에서 확정된 것이며, 그를 어길때에는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 이처럼 생사를 판단하는 선령신에 대한 보은적 태도의 당위성은 인간의 탄생과 관련성을 보이기도 한다.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가르치시를 “하늘이 사람을 낼 때에 헤아릴 수 없는 공력을 들이나니라. 그러므로 모든 선령신들은 육십년 동안 공에 공을 쌓아 쓸만한 자손 하나를 타 내되 그렇게 공을 드러도 자손 하나를 얻지 못하는 선령신들도 많으니라. 이 같이 공을 드러 어렵게 태어난 것을 생각할 때 꿈같은 한 세상을 어찌 잠시인들 헛되게 보내리오” 하셨도다.<sup>22)</sup>

이처럼 선령신은 인간(자손)의 탄생과 밀접한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것을 이루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인생을 참답게 살아가는 태도는 선령신에 대한 보은적 태도를 갖추는 구체적 행위이며, 도통과의 관련성을 차제(差除)하고 서

20) 『전경』, 교법 3장 42절

21) 『전경』, 공사 3장 9절

22) 『전경』, 교법 2장 36절

리도 인간이 지켜야할 중요한 삶의 지침임에 틀림이 없다.

이처럼 도통은 올바른 삶의 태도를 지향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며, 도통을 성취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들은 선천세계를 통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전경』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또 상제께서 말씀을 계속하시기를 「공자(孔子)는七十二명만 통예시켰고 석가는 五백명을 통케 하였으나 도통을 얻지 못한 자는 다 원을 품었도다. 나는 마음을 닦은 바에 따라 누구에게나 마음을 밝혀 주리니 ... 상등은 만사를 임으로 행하게 되고 중등은 용사에 제한이 있고 하등은 알기만 하고 용사를 뜻대로 못하므로 모든 일을 행하지 못하느니라」 하셨도다.<sup>23)</sup>

대순진리에 나타나는 도통은 누구나 닦은 바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므로 도통을 이루지 못해 발생하는 원(冤)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선천의 한계를 극복한 것이기도 하다. 지나간 선천 종교에서는 위의 내용에서 보이는 것처럼 도통을 이루는데 한계를 지녔던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그것으로 인해 원한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상제께서는 해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앞선 세상에서 보였던 도통의 제한점(制限點)을 극복하고 비록 차등적인 면을 지니기는 하지만 누구나 수도의 결과에 따른 도통을 받게 된다. 이는 도통의 결과에 해원의 법리가 실현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도통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생을 실현해야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실을 『전경』을 통해 살펴보자.

어느날 상제께서 교운을 굳건히 하시고자 도통에 관해 말씀이 계셨도다.

「지난 날에는 도통이 나지 아니 하였으므로 도가에서 도통에 힘을 기울였으나 음해를 이기지 못하여 성사를 이룩하지 못했도다. 금후에는 도통이 나므로 음해하려는 자가 도리어 해를 입으리라」 고 하셨도다.<sup>24)</sup>

이는 대순진리에서 제시하는 도통을 인식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23) 『전경』, 교운 1장 34절

24) 『典經』, 교운 1장 40절

전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위의 내용에 의거하면 선천세계는 진정한 도통을 이루지 못한 세계이며, 도통을 이루지 못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위의 내용에 나타난 것처럼 음해(陰害)이다. 따라서 금번에 나타나는 도통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생적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상생의 원리에 바탕한 도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음해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과거 유·불·선의 영역에서 도통을 염원하며, 각자가 나름대로의 수도를 통해 궁극적인 경지를 이루고자 하였으나, 그것을 모두다 성취하지는 못했었다. 그것의 결정적인 이유는 선천세계에서는 모든 도법이 합쳐져 조화를 이루는 상생(相生)의 원리가 작용되는 시대가 아니었다.<sup>25)</sup>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순진리에서 제시하는 도통의 방법은 해원상생의 원리에 입각한 것이면서 선천의 모든 도법이 합쳐져 조화를 이루는 상생(相生)의 원리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합덕과 관왕(冠旺)을 이루어 완성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유·불·선의 정수가 합쳐져 완성을 이룰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전경』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상제께서 모든 도통신과 문명신을 거느리고 각 민족들 사이에 나타난 여러 갈래 문화(文化)의 정수(精髓)를 뽑아 통일하시고 물 썬 틈 없이 도수를 짜 놓으시니라. (예시 12절)

선천세계에서 유·불·선이 문화의 바탕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후천에서는 이러한 문화의 정수가 통일된다는 사실을 위의 내용을 통해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통일의 원리에 의해 후천에서는 유·불·선이 정수가 합쳐지고 그것이 모여져 자연 성숙과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유·불·선의 통일과 도통은 깊은 관련성을 지니며 나타나는데 그러한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아래의 내용을 통해 그것을 확인해 보자.

25) 이와 관련한 내용은 전경 공사 3장 14~15절 진묵대사와 김봉곡에 관련한 일화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유학자인 김봉곡은 진묵대사의 도력과 지혜를 시기하고 음해하여 결국 진묵대사를 살해하게 된다. 그 결과 양자(兩者)는 결국 원한을 맺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리고 「내가 도통줄을 대두목에게 보내리라. 도통하는 방법만 알려주면 되려니와 도통될 때에는 유·불·선의 도통신들이 모두 모여 각자가 심신으로 닦은 바에 따라 도에 통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어찌 내가 홀로 도통을 맡아 행하리오」라고 상제께서 말씀하셨도다.<sup>26)</sup>

위의 내용에 나타나는 도통신이란 유·불·선의 영역에서 각자가 수도를 통하여 도통을 이루었던 존재들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도통신은 상제께서 정하신 음양합덕·신인조화의 원리에 의해 수도인들이 도통을 이루는데 조력(助力)을 하는 존재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순진리의 수도법에는 유·불·선의 정수가 합쳐져 있으므로 그것의 정수를 기초로 수행한 정도를 수찰하고 그에 따른 도통을 이루게 하는 신명이다. 이러한 사실은 수도인과 유·불·선 도통신이 조화를 이루게 될 때 도통을 이루게 된다는 인식을 얻을 수 있으며, 그것의 가능성은 대두목이 지니고 있는 도통줄에 기인하고 있다. 즉 도통신과 조화를 이루어 도통을 하기 위해서는 유·불·선의 정수를 합하고 통하게 할 수 있는 원리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대두목이 정한 수도의 법방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 이외에도 도통은 조선(朝鮮)·금강산(金剛山)이라는 특정한 지역과 깊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래의 「전경」 내용은 그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궁을가(弓乙歌)에 조선강산(朝鮮江山) 명산(明山)이라. 도통군자 다시 난다. 라 하였으니 「또한 나의 일을 이름이라 동학 신자간에 대선생(大先生)이 갱생 하리라고 전하니 이는 대선생(代先生)이 다시 나리라는 말이니 내가 곧 대선생(代先生)이로다」라고 말씀하셨도다.<sup>27)</sup>

... 「도는 장차 금강산 일만이천봉을 응기하여 일만 이천의 도통군자로 창성하리라. 그러나 후천의 도통군자에는 여자가 많으리라.」 하시고 ...<sup>28)</sup>

이는 성격상 특정한 지역이나 지명에 관계되는 내용이라기 보다는 땅(지

26) 『典經』, 교운 1장 41절

27) 『典經』, 권지 1장 11절

28) 『典經』, 예시 45절

기)과 관련한 특징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기(地氣)와 도통의 관련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련성은 앞서 전술한 유·불·선과 관련한 혈(穴)의 내용에서도 이해할 수 있었다. 이처럼 대순진리에서 제시되는 도통은 땅에 담겨있는 기운(氣運)과 깊은 관련성을 맺고 있다.

이는 특정한 기운을 담고 있는 땅(地氣)이 도통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면 그와 관련한 『전경』의 내용을 통해 그 이유를 살펴보자.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라. 마음을 부지런히 하라. 29)

도통과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되고 있는 인존(人尊)은 대순진리가 제시하고 있는 이상적 인간상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즉 인간이 신명과 조화를 이루어 도통을 이루게 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참고로 위에서 열거되고 있는 천존·지존·인존의 개념을 살펴보면, 천존은 신봉어천(神封於天), 지존은 신봉어지(神封於地), 인존은 신봉어인(神封於人)을 통해 설명된다.

천지의 신명을 하늘에 봉(封)한 때는 천존시대라하며, 천지의 신명을 땅에 봉한 때를 지존시대라하고, 천지의 신명을 인간에게 봉하는 때를 인존시대라 한다.<sup>30)</sup>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볼 때 천지의 신명과 인간이 합일을 이루게 되면 인존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그것은 대순진리에서 주장되는 도통의 핵심원리이기도 하다. 또한 이러한 내용은 천존→지존→인존시대라는 시대관을 통해 세계의 중심에 변화와 흐름을 인식하게 되며, 그와 관련한 등식(等式)을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시대의 추이에 따라 인간은 천지신명과 합일을 이루어 인존이 되고 인존은 우주에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하는 원리는 당연히 천지의 신명과 인간의 조화를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 따라서 천지신명과 조화를 이룬 인간은 인존으로 탈바꿈하게 되며, 이러한 원리에 비추어

29) 전경 교법 2장 56절

30) 대순진리회교무부, 대학생수강요지 참조.

볼 때 현재의 시점은 지존시대→인존시대로 전환되는 시기로 파악된다. 이러한 현실의 입장을 감안한다면 지금의 시기는 땅이 지니고 있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따라서 명산(名山)이 많이 모여 있는 조선과 그 중에서도 명산인 금강산은 이러한 이치와 관련하여 볼 때 커다란 상징성을 지니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금강산에 응기한 특정한 기운과 그곳에 응기한 신명은 도통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상제께서는 이와 관련한 공사를 보셨다고 파악되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제께서 농암에서 공사를 행하실 때 형렬에게 이르시기를 「허미수가 중수한 성천(成川) 강선루(降仙樓)의 일만 이천 고물은 녹줄이 붙어있고 금강산(金剛山) 일만 이천봉은 접기가 붙어있으니 이제 그 접기를 제거 하리라」 하시고...<sup>31)</sup>

이처럼 상제께서는 천하의 명산이라고 일컬어지는 금강산의 접기(劫氣)를 제거하시기 위한 공사를 보시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일만이천 도통군자가 출현하게 되며, 이를 위한 준비과정으로 위에서 보이는 공사를 행하셨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특정한 지역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의 『典經』 내용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금산사에 상제를 따라갔을 때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천황(天皇) 지황(地皇) 인황(人皇) 후 천하지대금산(天下之大金山) 모악산하(母岳山下)에 금불(金佛)이 능언(能言)하고 육장금불(六丈金佛)이 화위전녀(化爲全女)이라. 만국 활계 남조선(萬國活計南朝鮮) 청풍 명월 금산사(淸風明月金山寺) 문명 개화 삼천국(文明開化三千國) 도술 운통 구만리(道術運通九萬里)란 구절을 외워주셨도다.<sup>32)</sup>

라는 『典經』의 내용을 참조할 때 우리나라는 도술문명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계책을 지니고 있는 나라로 표현되고 있다. 따라서 도통은 우리나라와 깊은 관련성을 보이고 있으며, 그것을 이루는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31) 『전경』, 공사 2장 13절

32) 『전경』, 예시 14절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

이렇듯 도통을 이루기 위해서는 유·불·선 도통신은 물론이고 땅(지존)도 그것을 이루는데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음을 이해하게 된다. 또한 도통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겹기가 제거되고, 해원상생을 이룰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결국 대순진리에서 제시되는 도통은 특정한 하나의 결과만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그것이 하나로 합해질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한다.

## 2. 도통실현 과정의 이해

이 장에서는 앞서 전술한 도통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지는 과정에 주안점을 두고 그것의 내용을 살펴 보겠다.

도통의 실현과정과 그에 따른 결과는 대순진리회 요람(要覽)에 잘 설명되어 있는데 그것을 먼저 살펴보자.

아즉도 도즉아의 경지(境地)를 정각(正覺)하고 일단(一旦) 활연(豁然) 관통(貫通)하면 삼계(三界)를 투명(透明)하고 삼라만상(森羅萬象)의 곡진이해(曲盡理解)에 무소불능(無所不能)하나니 이것이 영통(靈通)이며 도통(道通)인 것이다.<sup>33)</sup>

위의 내용을 참조해 볼 때 도통의 과정에서 선행되어지는 첫 번째 내용은 아즉도(我則道) 도즉아(道則我)의 경지를 바르게 깨닫는 것이다. 아즉도 도즉아의 경지를 바르게 깨닫는다 함은 자신의 생각이나 행위가 경위와 도리에 합당한 상태를 이루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사실을 아래의 『대순지침』은 잘 보여주고 있다.

도(道)가 음양이며, 음양이 이치이며, 이치가 곧 경위며 경위가 법이라는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sup>34)</sup>

33) 『대순진리회요람』, 9쪽 참조

34) 『대순지침』, 18쪽



천리(天理)와 인사(人事)의 합일성을 밝혀 만상만유가 도 안에서 생성 존재하고 있는 진리를 확신케 하여야 한다.<sup>35)</sup>

이와 같이 아즉도 도즉아의 경지를 체득한다 함은 만유의 이치와 경위를 살피고 그것을 인사(人事)와 일체화된 상태로 만드는 것이며, 이것은 도통의 과정에서 전제되어야 할 수도의 가장 중요한 지침이기도 하다. 그리고 일단 이러한 경지를 이루었을 때 활연관통하게 되어 만상에 대한 이해에 막힘이 없어진다고 설명된다. 그런데 이러한 경지가 이루어지는 시점은 도통을 이루는 시기와 깊은 관련성을 보인다. 즉 앞서 전술한 내용처럼 유·불·선 도통신과의 조력(助力)을 통해 신인조화를 이루어 도통을 이루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을 『典經』을 통해 살펴보자.

그리고 「내가 도통줄을 대두목에게 보내리라. 도통하는 방법만 알려주면 되려니와 도통될 때에는 유 불 선의 도통신들이 모두 모여 각자가 심신으로 닦은 바에 따라 도에 통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어찌 내가 홀로 도통을 맡아 행하리오」라고 상제께서 말씀하셨도다.<sup>36)</sup>

이처럼 아즉도 도즉아의 과정을 이루게 되면 삼라만상의 이치를 깨닫고 이해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없게된다. 그러므로 이것을 일러 대순진리회요람에서는 영통(靈通)이며, 도통(道通)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전술한 것처럼 도통은 단순히 이치를 이해하고 깨닫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그것을 마음먹은 대로 임의용사(任意勇事)내지는 용력을 하는데 커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면 그것을 용사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도통을 이루는 과정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그 첫째는 시천주조화정영세불망만사지(侍天主造化定永世不忘萬事知)의 과정이며, 둘째는 지기금지원위대강(志氣今至願爲大降)의 과정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대순진리회에서 제시하는 수도(修道)는 ① 마음을 가라앉히고 몸을 차분하게 밀고 나가고, ② 상제(上帝)를 대월(對越)하여 영구히

35) 『대순지침』, 45쪽.

36) 『典經』, 교운 1장 41절

모시는 정신을 모으고 ③ 단전(丹田)을 연마하여 ④ 음양합덕(陰陽合德)·신인조화(神人調化)·해원상생(解冤相生)의 이법(理法)으로 대순진리에 도통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sup>37)</sup>

이처럼 상제님을 영구히 모시는 과정이 선행될 때 만사의 이치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상제님을 영구히 모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먼저 그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자.

상제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겨 언행과 처사가 일치되게 생활화하여 세립미진(細入微塵)되고, 마음이 무욕청정(無慾淸淨)이 되었을 때 道通眞境에 이르니라.<sup>38)</sup>

위의 내용처럼 상제님을 모신다는 의미를 지니는 시천주(侍天主)는 상제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어 언행과 처사를 일체화(一體化)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순수한 본연의 마음을 회복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를 이루게 되면 조화가 정해지고 그것을 영세토록 잊지 않게 되면 만사를 일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기금지원위대강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지극한 기운(至氣)을 받아 완전한 도통을 이루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자에 나타나는 '시천주조화정영세불망만사지'는 사물의 오묘한 이치에 관한 이해를 의미하며, 후자에 나타나는 '지기금지원위대강'은 용사(用事)와 관련하여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한 내용을 『典經』을 통해 살펴보자.

상제께서 어느날 한가로히 공우와 함께 계시는데 이 때 공우가 옆에 계시는 상제께 「동학주(東學呪)에 강(降)을 받지 못하였나이다」 고 여쭙니 「그것은 다 제우강(濟愚降)이고 천강(天降)이 아니니라」 고 말씀하셨도다. 또 「만일 천강을 받은 사람이면 병든 자를 한번만 만져도 낫게 할 것이며 또한 건너다 보기만 하여도 나올지니라. 천강(天降)은 뒤에 있나니 잘 닦으라」 고 알려주셨도다.<sup>39)</sup>

이처럼 도통과 관련하여 천강(天降)이 언급되고 있는데, 천강은 글자 그대로

37) 『대순진리회요람』, 참조

38) 『대순지침』 39쪽

39) 『전경』, 교운 1장 58절

로 하늘에서 내리는 치병을 가능케 하는 능력으로 나타난다. 이렇듯 치병(治病)과 관련한 내용은 용사(用事)가 구체화 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천강에 나타나는 특징적 사실은 어떤 특정한 개인이라도 천강과는 질적으로 구별되지만 이와 유사한 의미에 치병능력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수운은 결정적인 종교적 체험뒤에 하느님으로부터 영부와 주문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sup>40)</sup> 이처럼 영부는 사람들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지닌 어떤 부작이며, 주문은 나를 위하게 하는 놀라운 글이다.<sup>41)</sup> 이와 같이 당시에 최수운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치병능력을 가능케 했던 것은 천강(天降)이라기 보다는 영부이며, 이러한 사실을 상제께서는 제우강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典經』에서는 천강과 관련하여 그와 깊은 관련성을 보이는 지기(至氣)를 설명하고 있다. 먼저 그와 관련한 내용을 『典經』을 통해 살펴보자.

상제께서 교훈하시기를 “인간은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분공이 터져 큰 병에 걸리느니라. 이제 먼저 난법을 세우고 그후에 진법을 내리나니 모든 일을 풀어 각자의 자유 의사에 맡기노니 범사에 마음을 바로하라. 사곡한 것은 모든 죄의 근본이요, 진실은 만복의 근원이 되니라. 이제 신명으로 하여금 사람에게 임하여 마음에 먹줄을 겨누게 하고 사정의 감정을 번갯불에 붙이리라. 마음을 바로 잡지 못하고 사곡을 행하는 자는 지기가 내릴 때에 심장이 터지고 뼈마디가 통겨지리라. 운수야 좋건만 목을 넘어가기가 어려우리라.”<sup>42)</sup>

지기와 관련한 사실을 살펴볼 때 지기(至氣)는 천강(天降)과는 또 다른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살펴본 천강은 사람을 살리는 치병의 능력을 부여받게 하는 것이라면, 지기는 이와 반대로 사곡한 행위를 행한 사람에게 벌을 주고 생사(生死)를 판단하며, 그것을 응징하는 심판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양자는 일차적으로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지기는 대순진리회에서 봉송되고 있는 주문 중 기도주(祈禱呪)와 긴밀한 관련성을 지닌다. 기도주는 앞서 언급한 ‘시천주조화정영세불망만사지

40) 나로부터 이 영부(靈符)를 받아 사람들을 병으로부터 건져 주고 나로부터 주문을 받아 사람들을 가르쳐서 나를 위하게 하여라. 『동경대전』, 布德文

41) 최동희, 「최제우의 인간관」, 「철학적 인간관」(정신문화연구원, 1985) 148~9쪽

42) 전경, 교법 3장 24절.

지기금지원위대강'이다. 이처럼 지기는 기독교의 후반에 나타나는 내용이다.

'지기금지원위대강'은 "지극한 기운이 지금에 이르러 원하옵나니 크게 내려주옵소서"라는 내용으로, 지기를 크게 받기를 바라는 내용이 기독교 후반에 나타나는 골자이다. 따라서 기독교에서 보이는 내용을 감안한다면 지기는 단순히 사람을 해하게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지기는 하늘(상제님)로부터 내리는 어떤 특별한 기운이라고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지기와 천강이 하늘로부터 내려 온다는 사실은 유사한 공통점을 지닌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독교(祈禱呪)의 중요한 열원이 지기(至氣)를 크게 받는 것을 원하는 것이라면 지기는 사람을 살리는 치병의 능력과 사곡한 행위를 행한 사람을 응징하는 두가지의 기운을 함께 함유하고 있는 것이라 판단된다. 즉 천강(天降)과 지기(至氣)라는 표현을 통해 그것이 지니고 있는 (兩賈的)인 성격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도통의 과정은 수도를 통해 도통신과의 결합을 이룬 후 지기를 받을 때 이루어 지는 것으로 이해되며, 지기는 앞서 언급된 것처럼 생사(生死)를 판단하는 심판적(審判的)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상제님의 재출세(再出世)와 깊은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아래의 『典經』 내용은 이러한 특징을 잘 설명하고 있다.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요란하게 치는 어느날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가라사대 「뒷날 출세할 때는 어찌 이러 할 뿐이리오. 뇌성 벽력이 천지를 진동하리라. 잘못 닦은 자는 앉을 자리에 갈 때에 나를 따르지 못하고 엎드려지리라. 부디 마음을 부지런히 닦고 나를 깊이 생각하라」 하셨도다.<sup>43)</sup>

그리고 다시 말씀하시니라. 「나의 얼굴을 똑바로 보아두라. 후일 내가 출세할때에 눈이 부서 바라보기 어려우리라. 예로부터 신선을 말로만 전하고 본 사람이 없느니라. 오직 너희들은 신선을 보리라. 내가 장차 열석자의 몸으로 오리라」 하셨도다.<sup>44)</sup>

이처럼 『典經』을 통해 나타난 상제님의 재출세와 관련한 후분부에 나타

43) 전경, 교법 3장 25절.

44) 행록 5장 25절

나는 상황은 지기가 내리는 과정에서 보여졌던 내용과 유사함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기가 내리는 시점은 상제께서 재출세하시는 시점과 일치한다는 조심스러운 가정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典經』의 또 다른 내용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상제께서 하루는 공우에게 마음속으로 六任을 정하라고 명하셨도다. 공우가 생각한 여섯 사람 중 한 사람이 불가하다 하시여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정하였더니 이 사람들을 부르사 불을 끄고 동학 주문을 외우게 하여 밤새도록 방안을 돌게 하다가 불을 켜 보게 하시니 손씨가 죽은 듯이 엎어져 있느니라. 상제께서 「나를 부르라」고 그에게 이르니 그는 겨우 정신을 돌려 상제를 부르니 기운이 소생하니라. 상제께서 이 일을 보시고 종도들에게 「이는 허물을 지은 자니라. 이후에 괴병이 온 세상에 유행하리라. 자던 사람은 누운 자리에서 앉은 자는 그 자리에서 길을 가던 자는 노상에서 각기 일어나지도 못하고 옮기지도 못하고 혹은 엎어져 죽을 때가 있으리라. 이런 때에 나를 부르면 살아나리라。」고 이르셨도다.<sup>45)</sup>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그 공통점을 찾아보면 미래에 있게 될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상제님을 생각하고 상제님을 찾는 것임을 알게 한다. 이러한 상황을 유추하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책은 상제님을 모시고 지기를 받는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그리고 이렇듯 어려운 상황에 발생하는 괴병은 온 세상에 유행하게 되며, 괴병이 유행하는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급살(急煞)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역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상제님을 항상 모시고 그간 수도에 전력을 기울여 도통을 이룰 수 있는 경지에 이른 사람들은 도통신과의 합일을 이루어 도통을 이루고 천강(지기)을 받아 병든 사람을 구하게 된다. 따라서 생사(生死)가 결정되어지는 상황에서 상제님을 찾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아래의 『典經』은 이러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또 이르셨도다. 「부녀자들이 제 자식이라도 비위에 맞지 아니하면 급살 맞으라고 폭언하나니 이것은 장차 급살병이 있을 것을 말한이니라. 하루

45) 전경, 예시 1장 41절

짚신 세켈레를 당기면서 죽음을 밟아 명자를 구하러 다니리니 이렇게 급박할 때 나를 믿으라고 하면 따르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으리오. 그러므로 너희는 시장판에나 집회에 가서 내말을 믿으면 살 길이 열릴 터인데 하고 생각만 가져도 그들은 모르나 그들의 신명은 알것이니 덕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sup>46)</sup>

이처럼 상제님을 모시는 일은 생사를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며, 그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복록과 수명을 얻는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다. 따라서 평상시 수행이 무엇보다 중요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다음 장에서는 도통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살펴 보겠다.

### 3. 도통실현을 위한 구체적 노력

이 장에서는 도통실현을 위한 구체적 노력의 탐구를 통해 현실속에서 실현가능한 방법을 찾아 보는데 목적을 두고, 그와 관련한 『典經』 내용을 통해 그것을 살펴보자.

보라 선술을 얻고자 십년동안 머슴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그의 성의로 하늘에 올림을 받은 머슴을. 그는 선술을 배우고자 스승을 찾았으되 그 스승은 선술을 가르치기 전에 너의 성의를 보이라고 요구하니라. 그 머슴이 십년 동안의 진심갈력(盡心竭力)을 다한 농사 끝에야 스승은 머슴을 연못가에 데리고 가서 「물위에 뻗은 버드나무 가지에 올라가서 물위에 뛰어 내리라. 그러면 선술에 통하리라」 고 일러주었도다. 머슴은 믿고 나뭇가지에 올라 뛰어내리니 뜻밖에도 오색 구름이 모이고 선악이 울리면서 찬란한 보연이 머슴을 태우고 천상으로 올라가니라.<sup>47)</sup>

도통실현을 위한 구체적 노력과 관련한 내용을 통해 나타나는 사실은 정성을 다하는 노력을 통해 선술을 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선술에 통한 결과는 도통이며, 신선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대순진리회에서 제시하는 궁극의 목적이며, 道通眞境의 결과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도통실현을 위한 구체적 노력은 위의 내용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스승으로

46) 전경, 예시 1장 43절

47) 『典經』, 예시 83절

부터 10년 동안 진심갈력의 성의를 요구 받는다. 그리고 머슴은 선술에 통해 신선이 되기 위한 노력으로 몸과 마음을 다하는 진심갈력(盡心竭力)의 수행을 하게 된다. 그것을 다한 연후에 스승은 그의 수행정도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그가 생사를 초월하고 시비를 초월한 의심 없는 믿음을 갖추었는가를 시험하게 된다. 즉 10년동안 진심갈력을 다한 노력은 의심이 없는 믿음(信)을 갖출 수 있게 되며, 확고한 믿음을 갖출 수 있을 때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신선이 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도통실현의 노력에서 중요한 사실은 신선화(神仙化)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믿음의 중요성을 지적하게 된다. 이러한 믿음의 예는 다른 『典經』의 내용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것을 살펴보면

... 「나의 일은 여동빈(呂洞賓)의 일과 같으니라. 그가 인간의 인연을 찾아서 장생술을 전하려고 빗장사로 변장하고 거리에서 이 빗으로 머리를 빗으면 흰 머리가 검어지고 굽은 허리가 곧아지고 노구가 청춘이 되나니 이 빗 값은 천냥이로다고 왈치니 듣는 사람마다 허황하다하여 따르는 사람이 없기에 그가 스스로 한 노구에게 시험하여 보이니 과연 말과 같은지라. 그제야 모든 사람이 서로 앞을 다투어 모여오니 승천하였느니라.」<sup>48)</sup>

이처럼 앞에 전술한 예문의 공통적 특징은 모두 믿음에 대한 강조를 보여주고 있다. 즉 믿음은 의심없는 굳은 신념(信念)<sup>49)</sup>으로 그것은 생사판단을 결정하는 것<sup>50)</sup>으로 설명된다. 또한 도통과 관련하여 『典經』에서는 확고한 믿음과 깊은 유사성을 나타내고 있는 일심(一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그것을 살펴보자.

... 「이것이 남조선 뱃길이니라. 혈식 천추 도덕 군자가 배를 몰고 전 명숙(全明淑)이 천혈식하여 만인의 추앙을 받음은 모두 일심에 있나니라. 그러므로 일심을 가진 자가 아니면 이배를 타지 못하리라.」 고 이르셨도다.<sup>51)</sup>

48) 『典經』, 예시 61절

49) 『대순지침』, 54쪽

50) 위의 책, 같은 곳

51) 『전경』, 예시 50절

위의 내용에서는 道通眞境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파악되는 남조선(南朝鮮)에 동참을 위해서는 일심의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남조선사상은 정감록사상(鄭鑑錄思想), 신도읍사상(新都邑思想), 십승지사상(十勝地思想)등과 함께 시운(時運)에 의해 낡은 왕조 또는 세계가 물러가고 새로운 왕조나 새로운 신세계가 펼쳐진다는 사상으로 난세(亂世)를 피할 수 있는 피난처와 유토피아를 염원하는 대망사상(待望思想)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내용이다.

그런데 『典經』은 생사를 초월한 확고한 신념과 일심을 향한 수도적 노력은 생사(生死)에 관계없이 그 결과를 이룰 수 있다는 가르침을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생사를 초월한 확고한 믿음을 지니게 하는데 결정적인 가르침을 전달한다.

도를 닦는 자는 그 정혼이 굳게 뭉치기에 죽어도 흩어지지 않고 천상에 오르려니와 그렇지 못한 자는 그 정혼이 희미하여 연기와 물거품이 삭듯 하리라.<sup>52)</sup>

위의 내용에 따르면 수도의 과정이 전제될 때 천상(天上)에 오를 수 있으며, 죽어서도 자신의 근원적 존재인 정혼(精魂)을 보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정혼이란 육체를 떠난 죽은사람의 혼백(魂魄)을 가리키는 것으로, 만물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불가사의 한 기운으로 해석되기도 하며, 생명력의 근원을 이루는 신성(神聖)하고 초자연적인 존재로서 자유자재한 영혼을 말한다.

이는 그간 논의되어온 음양합덕과 신인조화의 내용을 감안해 볼 때 후천 세계는 신과 인간의 구분과 영역이 따로 없는 세계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현실에서 수도를 하다가 생전에 도통을 이루지 못하고 죽더라도 수도의 결과로 인해 자신의 근원적 존재인 정혼이 보존되기 때문에 사후에 그 결과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대순진리에 나타나는 내세관(來世觀) 내지는 미래관(未來觀)을 이해하는데 있

52) 『전경』, 교법 2장 27절



어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대순진리에 나타나는 내세관은 기성의 종교와는 다른 면을 지니며, 사후 세계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거의 없다. 이는 대순진리에 나타나는 내세관이 대순진리의 미래관(未來觀)과 연결되어 지는 까닭으로 이해된다. 즉 대순진리에 나타나는 내세관은 후천선경(道通眞境)이라는 미래관과 연결되어 지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음양합덕·신인조화라는 교리체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신과 인간의 관계는 음양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후천세계는 음양합덕·신인조화가 이루어지는 세계이므로 신과 인간의 영역과 구분이 없는 세계상을 나타나게 한다. 따라서 신·인이 합쳐진 세계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선천세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신·인의 구별에 따른 생·사의 개념이 없어진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살아 있는 존재이며, 신은 죽은 존재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의 특성상 후천선경은 생멸(生滅)이 없는 불로불사의 세계상을 열어갈 수 있으며, 그것을 설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기존의 종교에서 볼 수 있는 사후적 미래관이 나타나 있지 않음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특성에 기인하여 내세관보다는 미래관(未來觀)이란 표현으로 그것을 설명하였다. 다음은 『대순지침』에 나타난 내용을 토대로 도통을 실현시켜 나가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수도의 목적은 도통이니 수도를 바르게 하지 못 했을 때는 도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sup>53)</sup>

도통은 도인들 자신의 수도 여하에 달려 있느니라.<sup>54)</sup>

도통은 선후의 차등이 없고 오로지 바르게 닦느냐의 여부에 있을 뿐이다.<sup>55)</sup>

수도는 인륜을 바로 행하고 도덕을 밝혀 나가는 일인데 이것을 어기면 도통을 받을 수 있겠는가<sup>56)</sup>

53) 『대순지침』, 37쪽

54) 위의 책, 37쪽

55) 위의 책, 37~38쪽

내 마음을 거울과 같이 닦아서 진실하고 정직한 인간의 본질을 회복했을 때 도통에 이른다.<sup>57)</sup>

상제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겨 언행과 처사가 일치되게 생활화하여 세립미진(細入微塵)이 되고, 마음이 무욕청정(無慾淸淨)이 되었을 때 道通眞境에 이르니라.<sup>58)</sup>

임원들은 수반도인에 대한 교화를 인정이 넘치고, 신뢰가 감돌아 허세를 부리지 말고, 안색은 화기롭게 편안한 장소에서 안정한 시간을 택하여 부담이 없는 대화로써 신앙심을 높여 진리 도통의 진경에 이르도록 계도하는 것이다.<sup>59)</sup>

위의 예문에 나타난 내용은 도통을 위해서는 수도의 중요성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수도(修道)라는 원인 또는 과정이 우선되어 실천될 때 그 결과인 도통을 이룰 수 있다는 인과(因果)를 나타내는 것이면서 이것은 음양합덕의 원리를 충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또한 수도의 구체적인 방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그 내용에서 수도는 「인륜도덕을 밝혀 나가는 것」이며,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상제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대표적인 수도의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도통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典經』에 나타난 내용을 통해 도통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의 통틀어 결론을 맺고자 한다.

그리고 「내가 도통줄을 대두목에게 보내리라. 도통하는 방법만 알려주면 되려니와 도통될 때에는 유·불·선의 도통신들이 모두 모여 각자가 심신으로 닦은 바에 따라 도에 통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어찌 내가 홀로 도통을 맡아 행하리오」라고 상제께서 말씀하셨도다.<sup>60)</sup>

신명은 탐내어 부당한 자리에 앉거나 일들을 편벽되게 처사하는 자들의

56) 위의 책, 37쪽

57) 위의 책, 38쪽

58) 위의 책, 39쪽

59) 위의 책, 45쪽

60) 『典經』, 교운 1장 41절

덜미를 쳐서 물리치나니라. 자리를 탐내지 말며 편벽된 처사를 삼가하고 덕을 닦기를 힘쓰고 마음을 올바르게 가지라. 신명들이 자리를 정하여 서로 받들어 앉히리라.<sup>61)</sup>

위의 내용중 전반부의 예문은 道通眞境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원론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해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도통을 위해서는 대두목으로부터 부여받은 도통하는 방법에 따라 심신의 수도를 행할때, 유불선 도통신과의 조화를 통해 도통을 이루게 된다. 이는 신인조화의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특징적 내용을 감안할 때 대두목이 정한 수도의 방법이 우선되어야 함을 이해할 수 있다.

대두목은 구천상제님으로부터 도통하는 방법을 부여받은 존재로서 대순진리에서는 종통계승자로 인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대두목은 그 특성상 종통(宗統)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道通眞境의 실천방안에 관한 이해를 위해서는 종통에 관한 올바른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며 그것의 전제(前提)가 없이는 道通眞境의 실천방안을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상제님으로부터 종통을 계승한 종통계승자의 가르침이 우선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대두목의 중요성이 언급되는 이유는 그것이 도통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으며, 상제께서 재세할 당시에 도통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대두목에 관한 언급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상제께서는 현세의 구복과 도통을 약속하시면서도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시기는 미래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제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이해시키고 그것을 행하게 하실 목적으로 대두목을 통해 그것을 실현시키고자 하신 것이다. 따라서 대두목은 종통의 계승자의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상제님의 화천 이후에도 상제님의 가르침이 그대로 현실속에 전달되고 계승되어질 필요성은 너무도 절실한 것이다. 따라서 상제님이 아닌 또다른 대리자를 통해 그것을 현실속에서 실현시키고자 대두목을 정하시고 시대의 추이와 변화에 맞는 합당한 가르침과 수행의 방법을 대두목은 가르치게 되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대두목은 도통을 실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61) 「전경」, 교법 1장 29절

대두목이 정한 수도의 법방을 현실속에서 충실하게 이행해 나갈 때 도통을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속에서의 수행은 어려움을 참고 견디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대순지침』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신명공판(神明公判)이란 운수를 받는 자리에 가서 있는 것이 아니고 수도 과정에서 먼저 받게 되므로, 상제계서도 “나는 해마(解魔)를 위주하므로 나를 따르는 자는 먼저 복마(伏魔)의 발동이 있으니 복마의 발동을 잘 견디어야 해원하리라.”고 타이르셨으니 깊이 명심하라.<sup>62)</sup>

이와 같은 사실을 살펴볼 때 현실속에서 마(魔)를 견디어 가면서 수도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이기고 도통을 이루어 해원하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

### Ⅲ. 진경의 실현과정

논자는 대순진리에 나타난 종지의 특성은 음양(陰陽)의 덕(德)을 합하고, 신·인(神·人)을 조화(調化)하고, 원을 풀어(解冤) 상생(相生)하고, 도통(道通)을 통한 진경(眞境)의 세계를 건설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道通眞境은 도통을 이루고 진경의 세계를 건설하고자 하는데 큰 의의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도통의 결과인 진경세계는 후천선경의 참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이유로 이 논문에서는 道通眞境을 도통과 진경으로 나누어 그 의미를 밝혀보고자 하는 것이다.

#### 1. 진경(眞境)의 이해

진경(眞境)의 사전적 의미는 “신선(神仙)등이 사는 아주 깨끗한 땅”<sup>63)</sup> 또는 “본바탕을 가장 잘 묘사한 참다운 지경”<sup>64)</sup>으로 설명된다. 그것을 대순진

62) 『대순지침』, 94쪽

63) 民衆書館編輯局, 漢韓大字典,(서울:民衆書林, 1990), 871쪽

64) 양주동감수, 앞의 책 1922쪽

리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지상천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진경은 대순진리에서 건설하고 실현시키기 위한 이상세계를 표현한 것으로, 궁극의 목적세계인 후천선경을 표현한 용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진경은 후천선경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므로 진경의 이해를 위해 그러한 세계의 모습을 먼저 『典經』의 내용을 통해 살펴보자.

후천에서는 사람마다 불로 불사하여 장생을 얻으며 쾌함을 열면 옷과 밥이 나오며 만국이 화평하여 시기 질투와 전쟁이 끊어지리라.<sup>65)</sup>

이와 같이 『典經』의 내용을 통해 살펴본 진경세계인 후천선경은 인류가 그간 꿈꾸어왔던 이상세계의 단면을 충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 세계는 무병장수의 불로불사를 실현시키며, 의·식·주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빈곤을 떨쳐버린 풍요(豊饒)의 세계상을 보여준다. 그리고 인류에게 커다란 재난을 가져온 전쟁과 시기 질투가 없어진 화평(和平)의 세계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진경세계는 인류가 고민하고 걱정하였던 모든 문제를 해결한 신선이 노니는 선경(仙境)이면서 우주만유의 본래적 바탕이 잘 드러나는 세계임을 짐작하게 한다. 그러면 『典經』의 또 다른 내용을 통해 그 세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후천에서는 또 천하가 한 집안이 되어 위무와 형벌을 쓰지 않고도 조화로써 창생을 법리에 맞도록 다스리리라. 벼슬하는 자는 화권이 열려 분에 넘치는 법이 없고 백성은 원울과 탐음의 모든 번뇌가 없을 것이며 병들어 괴롭고 죽어 장사지내는 것을 면하여 불로불사하며 빈부의 차별이 없고 마음대로 왕래하고 하늘이 낮아서 오르고 내리는 것이 뜻대로 되며 지혜가 밝아져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시방 세계에 통달하고 세상에 수·화·풍(水火風)의 삼재가 없어져서 상서가 무르녹는 지상선경으로 화하리라.<sup>66)</sup>

위의 『典經』 내용에 의거하면 후천선경은 천하가 한 집안이 되는 이유로 선천세계에서 보여지던 전쟁·갈등·시기·질투의 위험요소가 근원적으로

65) 『典經』, 예시 80절

66) 『典經』, 예시 81절

해결되어 상생 화합의 기초를 이룰 수 있는 상태를 만들게 된다. 또한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의 관계가 대립이나 종속적 관계를 보이는 것이 아닌 조화적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선천세계에서 보이는 억울함이나 그로 인한 원의 발생이 근원적으로 해결됨을 보이고 있다. 또한 그 속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지혜로움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탐음과 번뇌가 없으며, 과거·현재·미래를 이해하는 능력을 갖는다. 이는 인과(因果)를 깨닫고 선한 마음과 행동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기초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기도 한다. 또한 앞서 언급한 음양합덕·신인조화의 원리가 후천선경에 꽃을 피우게 되므로 불로불사를 이루게 되며 물이나 불 그리고 바람등에 의한 자연재해가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좋은 환경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이처럼 후천선경은 세계를 구성하는 인적·물적·자연적 요소가 선천세계와는 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상생 조화를 이루어 상서(祥瑞)가 무르녹는 이상세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2. 진경실현 과정의 이해

이 장에서는 앞장에서 살핀 진경세계가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가는 과정의 이해를 통해 그것이 갖는 의미를 좀 더 구체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진경세계가 실현되어 가는 과정의 이해에 앞서 그것이 어떠한 원리나 방법에 의해 실현되어지는가를 살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의 내용을 상세히 살핀다는 것은 매우 방대한 작업이므로 이 장에서는 진경세계가 실현되어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의 진행과정을 통해 진경세계가 지니는 의미를 탐구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진경실현의 과정에서 주목해야할 첫 번째의 내용은 상제께서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진경을 열어나가는 기초를 정하셨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커다란 구도를 정하시고 그에 따른 실마리를 풀어 나가시고자 다양한 천지공사를 보시게 된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이미 앞장에서 전술한 도통의 내용에서도 살핀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생략하기로 하겠다. 그러면 먼저 진경실현의 과정을 『典經』을 통해 살펴보자.

상제께서 계묘년에 종도 김형렬과 그의 종도들에게 이르시니라. 「조선 신명을 서양에 건너보내어 역사를 일으키리니 이 뒤로는 외인들이 주인이 없는 빈집 들듯 하리라. 그러나 그 신명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제 집의 일을 제가 다시 주장하리라.」 67)

이처럼 조선의 신명이 서양에 건너가서 역사(役事)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마치 주인없는 집처럼 되어 다른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마음 놓고 활동을 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역사적인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는바 자세한 설명은 피하기로 한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좀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통해 그것을 살펴보자.

상제께서 종도들을 데리고 계실 때 「현하 대세가 五仙圍碁와 같으니 두 신선이 판을 대하고 있느니라. 두 신선은 각기 혼수하는데 한 신선은 주인이라 어느 편을 혼수할 수 없어 수수 방관하고 다만 대접할 일만 맡았나니 연사에만 큰 흠이 없이 대접만 빠지지 아니하면 주인의 책임은 다한 것이로다. 바둑이 끝나면 판과 바둑들은 주인에게 돌려지리니 옛날 한고조는 말위에서 천하를 얻었으되 우리나라는 좌상(座上)에서 득천하 하리라.」 고 말씀하셨도다. 68)

이처럼 오선위기(五仙圍碁)라는 상징적인 내용을 통해 상제께서는 당시의 세계사적 구도를 설명하고 계신다. 이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열강의 각축전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러한 열강의 각축속에서 우리나라는 주인으로 설명되며, 중심국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러한 대결의 구도가 종결된 뒤에 우리나라는 가장 커다란 이익을 얻는 나라가 됨을 보여주고 있다. 즉 바둑판과 바둑돌을 다시 되찾는 표현을 통해 커다란 이익이 있게됨을 설명하신다. 여기에서 바둑판은 세계를 의미하며, 바둑돌은 그 속에 살고 있는 세계의 민생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상제께서는 우리나라가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 싸우지 않고 그것을 쉽게 얻게 됨을 예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힘들이지 않고 좌상(座上)에서 천하를 얻는 것으로 표현하고 계신다.

67) 「전경」, 예시 1장 25절

68) 「전경」, 예시 1장 28절

이처럼 진경건설의 첫 번째 과정은 서양에 건너가 역사를 하고 있었던 신명을 우리나라에 다시 돌아오게 함으로써 우리나라를 위해 역사(役事)케 하는 것이고, 그것의 결과는 진경(眞境) 건설의 중심축이 됨을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典經』의 내용을 통해 그것을 살펴보자.

상제께서 매양 뱃소리를 내시기에 종도들이 그 연유를 여쭙니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를 상등국으로 만들기 위해 서양 신명을 불러와야 할지니 이제 배에 실어오는 화물표에 따라 넘어오게 됨으로 그러하노라.」 고 하셨도다.<sup>69)</sup>

… 「원(冤)을 품고 동양의 도통신(道通神)을 거느리고 서양에 가서 문화계발에 역사하였나니라. 이제 그를 해원시켜 고국(故國)으로 데려와서 선경(仙境) 건설에 역사케 하리라」 고 말씀하셨도다.<sup>70)</sup>

상제께서는 우리나라를 상등국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그간 서양에 건너가 역사를 하였던 신명들을 초혼하는 천지공사를 통해 우리나라에 신명들을 입국(入國)케 함으로써 진경건설에 참여케 한다는 방법을 보여주고 계신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진경건설의 중심국이 되면서 동시에 세계사를 이끌어 나가는 상등국의 면모를 갖추게 되는 것임을 이해하게 된다.

이처럼 한국을 세계사의 주역으로 등장하게 하는 상등국공사를 위해 상제께서는 그와 관련한 다양한 공사를 보셨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공사의 내용을 통해 그것을 살펴보자.

「만국 제왕의 기운을 걷어 버리노라」고 말씀하시더니 이상한 기운이 제왕의 장엄한 거동의 모양을 이루고 허공에 벌려 있더니 사라지는도다.<sup>71)</sup>

상제께서 어느날 고부 와룡리에 이르사 종도들에게 「이제 혼란한 세상을 바르려면 황극신(皇極神)을 옮겨와야 한다.」 고 말씀 하셨도다. 「황극신은 청국광서제(淸國光緒帝)에게 응기하여 있다.」 하시며 「황극신이 땅으로 옮겨 오게 될 인연은 송우암(宋尤庵)이 만동묘(萬東廟)를 세움으로부터 시작되었느니라.」 하시고 밤마다 시천주(侍天呪)를 종도들

69) 『전경』, 예시 1장 29절

70) 『典經』, 권지 2장 37절

71) 『전경』, 예시 27절



에게 염송케 하사 친히 음조를 부르시며 「이 소리가 운상(運喪)하는 소리와 같도다.」 하시고 「운상하는 소리를 어로(御路)라 하나니 어로는 곧 군왕의 길이로다. 이제 황극신이 옮겨져 왔느니라」고 하셨도다. 이때에 광서제가 붕어하였도다.<sup>72)</sup>

위의 내용은 우리나라를 진경건설의 주역이 되게 하시기 위해 보셨던 공사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상제께서는 진경세계가 건설되기 전에 인류에 닥칠 환란을 예시하고 있다. 그것은 대개 병겁·괴질·급살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출몰하는 병겁·괴질·급살은 동일한 내용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이와 관련한 내용을 『典經』을 통해 살펴보자.

상제께서 앞날을 위하여 종도들을 격려하여 이르시니라. “바둑에서 한수만 높으면 이기나니라. 남이 모르는 공부를 깊이 많이 하여두라. 이제 비록 張良, 諸葛이 쏟아져 나올지라도 어느 틈에 끼어 있었는지 모르리라. 선천개벽 이후부터 水旱과 난리의 겁재가 번갈아 끊임없이 이 세상을 진탕하여 왔으나 아직 병겁은 크게 없었나니 앞으로는 병겁이 온 세상을 뒤덮어 누리에게 참상을 입히되 거기에서 구해낼 방법이 없으리니 모든 기이한 법과 진귀한 약품을 중히 여기지 말고 의통을 잘 알아 두라. 내가 천지공사를 맡아 봄으로부터 이 동토에서 다른 겁재는 물리쳤으나 오직 병겁만은 남았으니 몸 돌이킬 여가가 없이 홍수가 밀려 오듯 하리라.”고 말씀하셨도다.<sup>73)</sup>

이처럼 한국이 세계사의 중심국이 되면서도 그에 따른 병겁의 도래는 피할 수 없는 숙제로 남게 된다. 그리고 미래에 도래할 병겁에 관한 내용에서는 커다란 의문이 발견된다. 그것은 상제께서 행하신 천지공사의 목적이 道通眞境의 세계를 건설하는 것이며, 그러한 세계는 모든 군생만물이 행복과 화평을 이루는데 있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과는 다르게 왜 모든 겁재는 물리쳤으나 병겁만을 남겨 놓았느냐 하는 의문이 그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의문을 풀 수 있는 『典經』의 내용을 통해 그 의미를 살펴보자.

상제께서 하루는 공우에게 마음속으로 六任을 정하라고 명하셨도다. 공

72) 「전경」, 공사 3장 22절

73) 「전경」, 공사 1장 36절

우가 생각한 여섯 사람 중 한 사람이 불가하다 하시여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정하였더니 이 사람들을 부르사 불을 끄고 동학 주문을 외우게 하여 밤새도록 방안을 돌게 하다가 불을 켜 보게 하시니 손씨가 죽은 듯이 엎어져 있느니라. 상제께서 「나를 부르라」고 그에게 이르니 그는 겨우 정신을 돌려 상제를 부르니 기운이 소생하니라. 상제께서 이 일을 보시고 종도들에게 「이는 허물을 지은 자니라. 이후에 괴병이 온 세상에 유행하리라. 자던 사람은 누운 자리에서 앉은 자는 그 자리에서 길을 가던 자는 노상에서 각기 일어나지도 못하고 옮기지도 못하고 혹은 엎어져 죽을 때가 있으리라. 이런 때에 나를 부르면 살아나리라。」고 이르셨도다.<sup>74)</sup>

이러한 『典經』 위의 내용은 모든 겁재를 물리치고 괴병을 남겨 놓으신 상제님의 의도를 짐작케 한다. 즉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고 허물을 고치는 노력을 강조하는 것이며, 죄와 허물에 대한 경계를 통해 상제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급살과 관련한 내용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남겨 놓으신 의도를 살펴보자.

또 이르셨도다. 「부녀자들이 제 자식이라도 비위에 맞지 아니하면 급살 맞으라고 폭언하나니 이것은 장차 급살병이 있을 것을 말한이니라. 하루 짚신 세겔레를 닿기면서 죽음을 밝아 명자를 구하러 다니리니 이렇게 급박할 때 나를 믿으라고 하면 따르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으리오. 그러므로 너희는 시장판에나 집회에 가서 내말을 믿으면 살 길이 열릴 터인데 하고 생각만 가져도 그들은 모르나 그들의 신명은 알것이니 덕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sup>75)</sup>

이러한 사실은 결과적으로 후천선경이 도래 하기전 말대의 심판적 과정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진경이 건설되기 이전에 말대(末代)의 심판적 과정은 질병과 관련한 급살등의 어려움을 통해 자연 상제님에 대한 믿음과 남모르는 공부·수도등에 대한 강조를 인식하게 한다. 또한 질병 이외에 기근(饑饉)과 관련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한 사실을 살펴보자.

상제께서 어느날 종도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묵은 하늘은 사람을 죽이는 공사만 보고 있었도다. 이후에 일용 백물이 모두 찢절하여 살아

74) 『전경』, 예시 1장 41절

75) 『전경』, 예시 1장 43절

나갈 수 없게 되리니 이제 뜯어고치지 못하면 안되느니라」 하시고 사흘 동안 공사를 보셨도다. 상제께서 공사를 끝내시고 가라사대 「간신히 연명은 되어 나가게 하였으되 장정은 배를 채우지 못하여 배 고프다는 소리가 구천에 달하리라」 하셨도다.76)

이처럼 인류에게 남겨 놓으신 어려움과 환란은 결국 인간을 좀더 성숙하게 하고 완성을 이루게하는데 그것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따라서 자신의 허물을 뉘우치고 진경세계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실현하는 일은 무엇보다 말대의 심판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리고 진경세계가 실현되어 가는 과정에서는 그와 관련한 징후와 예시가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 어느날 상제께서 종이에 철도선을 그리고 북쪽에 점을 찍어 정읍(井 邑)이라 쓰고, 남쪽에 찍은 점을 사거리라 쓰고, 가운데에 점을 찍으려다가 몇번이나 망설이더니 대흥리로 떠나실 때에 그 점을 치시고 「이 점이 되는 때에 세상일이 다 되느니라」 고 말씀하셨도다.77)

또 원평이 지금은 건너다 보이나 훗날에는 건너다 보이지 않을 때가 오리라. 그러나 또 다시 건너다 보일 때가 있으리니 그때가 되면 세상일이 가까와짐을 깨달을지어다.78)

이러한 징후와 예시가 의미하는 구체적인 의도나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를 이해하는 일은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진경건설의 과정에 나타나는 징후는 대단히 의미있는 것임에 틀림없다. 다시 말하면 상제께서 예시와 특징적 징후를 통해 진경실현의 시기가 점차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면서, 그것의 시점을 이해하게 하는 표식을 설정함으로써 신앙에 대한 고취를 유도하시는 의도를 짐작케 한다. 그리고 그러한 가시적 현상을 통해 진경실현에 대한 믿음과 그에 따른 대비를 마련케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진경실현과정에서 나타나는 징후와 관련한 또 다른 특징을 통해 그것의 의미를 살펴보자.

76) 「전경」, 공사 1장 11절

77) 「전경」, 예시 52절

78) 「전경」, 예시 62절

천지에 수기(水氣)가 돌 때 만국 사람이 배우지 않아도 통어(通語)하게 되나니 수기가 돌 때에 와직끈 소리가 나리라.<sup>79)</sup>

징후와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되고 있는 수기(水氣)가 의미하는 진정한 내용은 알 수가 없다. 다만 그러한 징후가 나타날 때에 만국은 언어통일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감지할 수 있는 특별한 징거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진경실현의 전단계 과정에서는 나타나는 징후와 관련한 특징은 매우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공포스러움과 두려움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 즉 후천에서 천하가 한 집안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언어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기초적 준비가 진경실현의 전 단계에서 특별한 징후와 더불어 이루어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인 것이다. 그런데 진경이 실현되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징후가 지니고 있는 또다른 특징은 우리가 그것을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는데 있다. 즉 모든 사람이 현실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통해 미리 그것을 예시를 하셨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또 가라사대 “앞으로 오는 좋은 세상에서는 불을 때지 않고서도 밥을 지을 것이고 손에 흙을 묻히지 않고서도 농사를 지을 것이며 도인의 집집마다 등대 한개씩 세워지리니 온 동리가 햇빛과 같이 밝아지리라. 전등은 그 표본에 지나지 않도다. 문고리나 옷걸이도 황금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금 당해를 신으리라.” 하셨도다.<sup>80)</sup>

이러한 내용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토대로 이해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제께서 생활하셨던 당시의 시대적·문화적 배경을 감안한다면 이는 분명 예시적 내용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즉 위의 내용을 검토해보면 비록 일부의 내용은 아직 실현되지 못했지만 상당한 부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생활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분명 진경실현이 이루어지기 전의 삶을 살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 이러한 예시적 내용은 우리에게 진경실현의 가능성을 확신

79) 『전경』, 예시 51절

80) 『전경』, 공사 1장 31절

케 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 그렇다면 진경실현을 위한 우리의 구체적 노력을 이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이유로 다음의 내용에서는 그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 3. 진경실현을 위한 구체적 노력

진경실현을 위한 구체적 노력과 그에 따른 근원적 탐구는 무엇보다 진경실현의 필연성을 이해하는 일과 거리가 멀지 않다. 즉 진경세계는 왜? 실현되어야만 하는가를 살피는 일은 현실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그것을 개선해 나가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은 대순사상에서 지적하고 있는 선천의 현실을 파악하고 그것을 개선해 나가는 현실적 노력을 통해 우리는 그것의 정확한 방향과 목표를 인식하게 된다. 이처럼 진경실현을 위한 구체적 노력은 그것의 필연성을 이해하는데서 출발하게 된다. 그러면 이와 관련한 내용을 통해 진경실현의 구체적인 노력을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선천에 나타난 문화발생의 배경과 그로 인해 파생된 부작용과 폐해는 진경실현을 우리의 노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가르침을 전달하고 있다. 그러면 그와 관련한 선천세계의 실상을 살펴보자.

세계의 모든 족속들은 각기 자기들의 생활 경험의 전승(傳承)에 따라 특수한 사상을 토대로 색 다른 문화를 이룩하였으되 그것을 발휘하게 되자 마침내 큰 시비가 일어났도다. 그러므로 상제께서 이제 민족들의 제 각기 문화의 정수를 걷어 후천에 이룩할 문명의 기초를 정하셨도다.<sup>81)</sup>

위의 내용은 진경실현의 구체적 필연성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며, 동시에 우리가 지향해야 할 노력들을 가르치고 있다.

선천세계에 나타났던 폐해를 지적하고, 그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된 천지공사의 내용은 선천문화의 정수를 뽑아 후천문명의 기초를 정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매우 주목할 만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면 이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좀 더 살펴보자.

81) 「전경」, 교법 3장 23절

상제께서 모든 도통신과 문명신을 거느리고 각 민족들 사이에 나타난 여러 갈래 文化의 精髓를 뽑아 통일하시고 물 썰 틈 없이 도수를 짜 놓으시니라.<sup>82)</sup>

이처럼 선천세계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은 인류에게 많은 이로움과 긍정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그러한 다양성의 결과는 또다른 반대급부를 연출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하고 경계해야 할 부분은 긍정적 결과를 나타낸 내용보다는 그렇지 못한 결과에 주목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 부분을 과감히 철폐하고 더 이상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노력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지와 관련하여 상제께서는 이를 위한 공사를 행하셨는데 그것을 살펴보자.

또 상제께서 가라사대 “지기가 통일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속에서 살고 있는 인류는 제각기 사상이 엇갈려 제각기 생각하여 반목 쟁투하느니라. 이를 없애려면 해원으로써 만고의 신명을 조화하고 천지의 도수를 조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이룩되면 천지는 개벽되고 선경이 세워지리라” 하셨도다.<sup>83)</sup>

이는 선천세계에 나타난 반목쟁투의 근원을 설명하는 것이면서 그에 따른 대안을 함께 나타내고 있다. 인류의 생활경험에 따라 만들어진 특수한 사상 체계는 하나의 문화가 성립하는 토대를 이루었고, 그것의 확대는 또다른 문화와의 충돌과 갈등을 불러오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사상과 문화적 충격은 심각한 갈등과 폐해를 인류에게 가져왔고, 그 결과 많은 희생을 불러 일으켰다. 그리고 문화가 발생하는 근원적 배경에 지기(地氣)가 적지 않은 영향과 작용을 미치고 있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 하다. 그런데 지기(地氣)는 그것이 지니고 있는 신비를 벗기고 그 의미를 정확히 설정하는 데에는 아직 미흡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지기는 아직은 대단히 추상적인 개념의 것이므로 그것을 무엇이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지기가 지니고 있는 추상적 개념으로 인한 난재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와 대체하여

82) 「전경」, 예시 12절

83) 「전경」, 공사 3장 5절

이해할 수 있는 유사한 개념으로 자연적 환경을 설정하였다.

즉 지기를 대신하여 자연적 환경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즉 각자가 처해있는 자연적 환경이나 배경은 분명 사상과 문화적 토대를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상제께서는 진경실현을 위한 구체적 노력중 하나로 인류문화의 정수를 하나로 합치기 위해 지기를 통일하는 공사를 보시게 된다.

상제께서 각 처에서 정기를 뽑는 공사를 행하셨도다. 강산 정기를 뽑아 합치시려고 父母山의 정기부터 공사를 보셨도다. 부모산은 전주 母岳山과 淳昌 回文山이니라. 회문산에 이십 사혈이 있고 그 중에 五仙圍碁形이 있고 碁變은 唐堯가 창작하여 단주를 가르친 것이므로 단주의 해원은 오선위기로부터 대운이 열려 돌아날지니라. 다음에 네 明堂의 정기를 종합하여야 하나라. 네 명당은 淳昌回文山의 오선위기형과 務安 僧達山의 胡僧禮佛形과 長城 巽龍의 仙女織錦形과 泰仁 拜禮田의 群臣奉詔形이니라. 그리고 부안 변사에 二十四 혈이 있으니 이것은 회문산의 혈수의 상대가 되면 해변에 있어 海王의 도수에 응하느니라. 회문산은 山君, 변산은 海王이니 상제께서 그 정기를 뽑으셨도다.<sup>84)</sup>

이는 '지기통일공사'라고 불리우는 천지공사이다. 이처럼 진경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은 선천문화의 폐해를 극복하고 문화와 사상의 통합과 성숙을 이루고자 하는 상제님의 의지가 충분히 반영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에 의해 진경세계는 천하가 한집안이 되어 시기·질투·전쟁이 없는 화평한 세계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근원적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지기통일공사에서 추구하는 통합과 성숙의 의지는 결과적으로 후천문화의 기초가 문화의 보편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 그것은 특정한 국가나 민족의 문화가 중심시되거나 우월함을 나타내는 것을 배격하고 세계 사람 누구나가 불편함없이 공감할 수 있는 문화나 사상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후천에서는 인종·민족·국가를 초월하여 세계사람이 누구나가 보편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단일한 문화·사상의 확립이 가능하게 된다.

진경실현을 위한 구체적 노력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도통신과 문명신이 그것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사실을

84) 「진경」, 공사 3장 6절

「典經」을 통해 살펴보자.

상제께서 모든 도통신과 문명신을 거느리고 각 민족들 사이에 나타난 여러 갈래 文化의 精髓를 뽑아 통일하시고 물 썰 틈 없이 도수를 짜 놓으시니라.<sup>85)</sup>

상제께서 하루는 종도들에게 “震默이 천상에 올라가서 온갖 묘법을 배워 내려 인세에 그것을 베풀고자 하였으나 金鳳谷에게 참혹히 죽은 후에 冤을 품고 동양의 道通神을 거느리고 서양에 가서 문화 계발에 역사하였나니라. 이제 그를 해원시켜 故國으로 데려와서 仙境 건설에 역사케 하리라”고 말씀하셨도다.<sup>86)</sup>

이처럼 도통신과 문명신이 진경건설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매우 흥미롭고 중요한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 즉 도통신은 그 특성상 정신문명과 관련이 있는 신명으로 파악된다. 또한 문명신은 물질문명과 관련이 있는 신명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사실은 후천문명의 궁극적 목적이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이 조화를 이루는 세계상을 추구하는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결국 음양합덕·신인조화의 원리가 작용되어 해원상생을 이룬 결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동시에 이러한 사실은 선천세계의 심각한 폐해의 원인을 이해하는 중요한 가르침을 전달하고 있다.

선천세계가 진멸지경에 처한 원인중 하나는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의 부조화에 있었음을 「전경」은 지적하고 있다.

상제께서 어느 날 김 형렬에게 가라사대 「서양인 이마두(利瑪竇)가 동양에 와서 지상 천국을 세우려 하였으되 오랫동안 뿌리를 박은 유교의 폐습으로 쉽사리 개혁할 수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도다. 다만 천상과 지하의 경계를 개방하여 제각기의 지역을 굳게 지켜 서로 넘나들지 못할진 신명을 서로 왕래케 하고 그가 사후에 동양의 문명신(文明神)을 거느리고 서양에 가서 문운(文運)을 열었느니라. 이로부터 지하신은 천상의 모든 묘법을 본받아 인세에 그것을 베풀었노라. 서양의 모든 문물은 천국의 모형을 본딴 것이라」 이르시고 「그 문명은 물질에 치우쳐서 도리어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고 마침내 천리를 흔들고 자연을 정복하려는 데서 모든 죄악을 끝임없이 저질러 신도의 권위를 떨어뜨렸으며

85) 「전경」, 예시 12절

86) 「전경」, 권지 2장 37절



로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어겨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 지게 되니 원시의 모든 신성과 불과 보살이 회집하여 인류와 신명계의 ...87)

이처럼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의 부조화는 『典經』의 내용에 나타나는 것처럼 선천세계가 진멸에 처하게 된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폐단을 극복하고 양자의 조화를 이루고자 했던 상제님의 의지는 도통신과 문명신의 역할과 조화로 나타난다. 이처럼 진경세계는 선천의 상극적 상황을 종결하고 해원과 상생을 토대로 한 원리를 실현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음양합덕·신인조화·해원상생을 이루고 인간이 신선이 되어 무병장수하는 불로불사의 세계상으로 이어진다.

상제께서는 이러한 진경세계건설을 위한 노력에 인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먼저 그러한 사실을 『典經』을 통해 살펴보자.

상제께서 하루는 김형렬에게 「삼계 대권을 주재하여 천지를 개혁하고 후천선경(後天仙境)을 열어 고해에 빠진 중생을 널리 건지려하노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제 말세를 당하여 앞으로 무극대운(無極大運)이 열리나니 모든 일에 조심하여 남에게 척을 짓지말고 죄를 멀리하여 순결한 마음으로 천지공정(天地公庭)에 참여하라。」고 이르시고 그에게 신안을 열어주어 신명의 회산과 청령(聽令)을 참관케 하셨도다.88)

이처럼 “죄를 멀리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천지공정에 참여하라”는 상제님의 말씀은 진경실현을 위해 인간이 행해야할 구체적 노력을 지적하고 계신다.89) 또한 앞날에 닥쳐올 환란을 피하는 방책을 갖추기 위해 ‘남모르는 공부를 깊이 많이 하라’는 가르침과 ‘의통을 잘 알아 두라는’ 강조는 분명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아래의 『典經』 내용은 이러한 사실을 잘 증명하고 있다.

87) 「전경」, 교운 1장 9절

88) 「전경」, 예시 17절

89) 참고로 이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대순사상논총 4집」 拙稿, 「해원상생의 실천방안에 관한 연구」를 참조할 것

상제께서 앞날을 위하여 중도들을 격려하여 이르시니라. 「바둑에서 한수만 높으면 이기나니라. 남이 모르는 공부를 깊이 많이 하여두라. 이제 비록 장량(張良), 제갈(諸葛)이 쏟아져 나올지라도 어느 틈에 끼어 있었는지 모르리라. …선천개벽 이후부터 수한(水旱)과 난리의 검제가 번갈아 끊임없이 이 세상을 진탕하여 왔으나 아직 병점은 크게 없었나니 앞으로는 병점이 온 세상을 뒤덮어 누리에게 참상을 입히되 거기에서 구해낼 방책이 없으리니 모든 기이한 법과 진귀한 약품을 중히 여기지 말고 의통을 잘 알아 두라. …90)

이처럼 진경실현을 위한 구체적 노력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아래의 『典經』에 나타나는 내용일 것이다.

상제께서 「이후로는 천지가 성공하는 때라. 西神이 사명하여 만유를 제재하므로 모든 이치를 모아 크게 이루나니 이것이 곧 개벽이니라. 만물이 가을 바람에 따라 떨어지기도 하고 혹은 성숙도 되는 것과 같이 참된 자는 큰 열매를 얻고 그 수명이 길이 창성할 것이요. 거짓된 자는 말라 떨어져 길이 멸망하리라. 그러므로 신의 위엄을 떨쳐 불의를 숙청하기도 하며 혹은 인애를 베풀어 의로운 사람을 돕나니 복을 구하는 자와 삶을 구하는 자는 힘쓸 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도다. (예시 30절)

…가라사대 「이제 말세를 당하여 앞으로 無極大運이 열리나니 모든 일에 조심하여 남에게 척을 짓지말고 죄를 멀리하여 순결한 마음으로 天地公庭에 참여하라.」 고 이르시고… (예시 17절)

#### IV. 맺음말

나의 일은 남이 죽을 때 잘 살자는 일이고, 남이 잘 살 때에 영화와 복록을 누리자는 일이다.<sup>91)</sup>

현세지향적인 한국인의 종교적 심성을 반영한 대순진리에 나타난 道通眞境은 상제께서 행하신 천지공사에서 그 뜻을 피우고 있다. 그리고 위의 「전경」 내용에서 보이는 것처럼 현세의 구복과 영화를 강조하신 상제님의 말씀에서도 그 의지는 충분히 발현되고 있다. 이처럼 道通眞境으로 표현되

90) 「전경」, 공사 1장 36절

91) 전경 교범 1장 6절

는 이상세계는 기성의 종교처럼 인간을 중심으로 집중되는 구원의 내용과는 다르게 신과 인간을 비롯한 우주에 존재하는 만유의 모든것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렇듯 넓은 군생만물에 대한 구제의 관심은 상제께서 향하신 천지공사의 적용범위나 그 대상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신과 인간의 조화를 통해 일차적으로 음양합덕을 실현하고 그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마련되어 지는 신인조화의 완성은 신·인의 도통을 이루게 된다. 이는 선천세계에서 원한에 의해 막혀있었던 신·인의 본질적 교류를 가능케 하였고, 서로 상보(相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케 하여 각각의 완성을 통해 결실을 이루게 한다.

이러한 결과는 상제께서 천지공사를 통해 펼쳐나가신 해원상생의 원리가 지향하는 결과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면서, 선천세계를 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된 해원상생의 의의를 인식케 하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음양합덕·신인조화·해원상생으로 연결되는 종지의 관련성은 결국 道通眞境이라는 결과를 만들어 내었다. 따라서 道通眞境에는 앞서 전술된 종지의 모든 원리와 이법이 그대로 녹아들어 찬란한 결정(結晶)을 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대순진리에서 제시하는 이상세계 건설의 실현가능성을 확인케 하는 중요한 원리이기도 하다. 이렇듯 확신에 찬 이상세계의 실현가능성은 우리에게 현실속에서 진경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성취해야 할 과제를 전달하고 그것의 분명한 표식을 설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 대순진리회교무부, 典經, (서울:대순진리회출판부, 1989)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지침(서울:대순진리회출판부,1984)  
대순사상학술원,대순사상논총 1·2·3·4집(포천:대진대학교출판부)  
대순진리회교무부, 대순진리회요람(서울:대순진리회출판부, 1980)  
대순진리회교무부, 대학생수강요지(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1988)  
양주동 감수, 국어대사전, (서울:善一文化社, 1977)  
송규, 『불법연구회 창건사』  
동경대전  
최동희 「최제우의 인간관」, 『철학적 인간관』 정신문화연구원, 1985)